

〈제 3회 노원문화공동체 협의회 포럼〉 진행결과

I

포럼 개요

- (사 업 명) 〈제 3회 노원문화공동체 협의회 포럼〉
- (목 적) 발전 방안 의견수렴을 위한 주제발표 · 지정토론
- (주 제) ‘문화도시 노원’을 위한 문화재단 · 도서관 발전 방안
- (일 시) 2022. 12. 13.(화) 14:00
- (장 소) 노원문화예술회관 5층 소공연장
- (참 석 자) 노원문화공동체 회원 및 서울시 도서관 · 문화재단 관계자 등
약 60여명
- (세부일정)

시간(분)	내 용		담당
14:00 ~ 14:05	개회 및 개회사		(사회) 이종현 부장 (개회사) 원응호 사무국장
14:05 ~ 14:15	제 1주제	<도서관 문화를 그리다> - 노원문화재단 도서관의 2년여간 사례를 중심으로	(발제) 윤정환 실장
14:15 ~ 14:25	제 2주제	<일상과 비일상의 만남, 변화의 시작> - 성북구립도서관 운영사례를 중심으로	(발제) 이진우 부장
14:25 ~ 14:35	제 3주제	<기초문화재단에서 만난 직업정체성의 충돌과 협력> - 도서관과 사서와 (공연, 문화)기획인, 그리고 행정인	(발제) 장석류 교수
14:35 ~ 14:45	휴식		
14:45 ~ 15:15	지정 토론	토론 <문화도시 노원을 위한 문화재단·도서관 발전 방향>	(좌장) 한승희 교수 (토론) 한승희, 윤정환 이진우, 장석류 오지은, 윤금노
15:15 ~ 15:25	자유토론	질의응답	
15:25 ~ 15:30	폐회		

□ 주제 발표

○ 윤정환 (재)노원문화재단 도서관 정책실장

(주제) 도서관 문화를 그리다

(내용) 기초단계에서 노원문화재단 도서관의 2년여간 사례

- 두 분야의 전문 그룹이 어떤 다름이 있는지 이해하고, 함께 일하며 부딪히는 과정을 살펴봄.
- 도서관이라는 그릇 안에 소통과 정보 공유,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이점을 기반으로 강연이나 전시, 공연 등의 콘텐츠를 기획
- 도서관 파트와 문화예술 파트의 기획 방식이 다름을 이해하며 점진적으로 콘텐츠를 융합하여 풀어낼 수 있도록 진행

○ 이진우 (재)성북문화재단 도서관사업부장

주제 : 일상과 비일상의 만남, 변화의 시작

내용 : 성북문화재단과 성북구립도서관의 10여년간 공동사업 우수 사례

- 재단 설립 초기 다양한 성격의 문화시설, 재단의 성격과 위상을 잡아가는 시기적 특성의 문제 등으로 대내외적인 갈등 존재
- 지역과 삶이 도서관 운영의 기본 출발점이 되면서, 재단의 문화시설들과 사업부서간에 공통분모가 생겨났고, 서로의 다름은 배제가 아닌 상생을 위한 자극으로 전환되었음.
- 도서관이 만나는 다양한 접점 중에서도 문화예술과의 만남이 가장 큰 시너지를 냄. 이는 도서관의 일상성과 문화예술의 비일상성의 만남에서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임.
- 도서관과 문화예술은 여전히 서로 잘 알지 못하지만, 분명한 것은 끊임없이 만나고 협력하면서 이제는 신뢰가 생겼고, 함께 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진다는 믿음이 만들어졌다는 것임.

○ 장석류 연세대 행정대학원 사회문화 겸임교수

주제 : 기초문화재단에서 만난 직업정체성의 충돌과 협력
내용 : 도서관 사서와 (공연, 문화)기획인, 그리고 행정인

- 도서관 영역과 지역 문화, 생활 문화 영역의 단층이 부딪히고 행정인, 기획인, 예술인이 서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르다고 가정
- 중앙 단위의 조직들은 통합되지 않고 자치구 문화재단이 예산, 정책 흐름을 흡수하며 여러 형태의 가치 충돌이 발생하며 도서관과 문화재단의 서로 다른 조직문화가 이를 극대화함.
- 기존 도서관의 구조가 책을 중심으로 매개와 협업이 이루어지기에 사서들이 도서관 문턱을 넘어 외부와 미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
- 많은 재단에서 거버넌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조직 내에서도 부서 간의 거버넌스 문화가 필요함. 그러기 위해서는 상호 이해 영역과 협업 역량이 엄청 중요함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.

□ 지정 토론

○ 좌장 : 한승희 서울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

○ 패널

- 윤정환 (재)노원문화재단 도서관정책실장
- 이진우 (재)성북문화재단 도서관사업부장
- 장석류 연세대 행정대학원 사회문화 겸임교수
- 오지은 서울도서관장
- 윤금노 노원문화재단 문화진흥팀장

○ 공통 의견

- 문화재단과 도서관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의 필요
- 두 집단이 서로에게 바라는 관점과 협업 방안

○ 개별 안전 요약

- 윤정환 : 현재는 서로가 알아가는 단계. 시간을 갖고 추진 필요
- 이진우 : 연결될 수밖에 없는 두 집단. 이 둘이 만날 때 시너지가 발생
- 장석류 : 도서관과 문화재단. 서로 간의 신뢰감 형성 필요
- 오지은 : 문화는 주민들의 삶이 근원. 적극적인 시민 참여 유도 필요
- 윤금노 : 인문학적인 관점을 벗어나 문화예술로서 도서관을 바라봐야 함.

○ 주요 토론 내용

Q. 한승희(좌장) 서울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

- 발제자에게 발제 의도와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협업을 할 수 있는지 발언 요청

A. 윤정환 (재)노원문화재단 도서관 정책실장

- 문화예술계와 접점이 없었던 상황에서 상대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고민하며 시작을 해보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. 두 개의 전문가 그룹이 생각하는 바와 표현하는 바가 다르고 서로 알아가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겠지만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서로가 다치지 않을 수 있는지 고민을 시작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주시길 바람.

A. 이진우 (재)성북문화재단 도서관사업부장

- 문화재단을 10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초반에는 서로 이해하기 힘들었음. 시간이 지나고 재단과 도서관이 구민의 삶의 관점에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으며 이 둘이 연결되고 만났을 때 시너지가 난다는 것을 확인

일상성을 기반으로 안정성과 보수성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과 사회 변화나 문화 정책 등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화예술계가 만나 기질적 차이를 깨닫고 서로의 단점을 보완했을때 그 차이가 만들어내는 시너지의 힘을 믿음

A. 장석류 연세대 행정대학원 사회문화 겸임교수

- 지역 문화와 문화 정책이 변화하듯 도서관 문화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. 도서관과 문화예술 모두 소속 직원은 서로의 성장에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고민하고 상대방을 신뢰하는 만큼 자신도 신뢰받을 수 있음.

Q. 한승희(좌장) 서울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

- 도서관 관점에서 문화예술을 보는 시각과 문화예술 관점에서 도서관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차이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. 그 격차를 어떻게 줄여나가느냐가 관건이며 앞으로의 협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새로운 모델 제시가 필요한 시점
- 오지은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?

A. 오지은 서울도서관장

- 그동안 문화를 예술의 개념으로 편중하여 생각한 건 아닌지 생각. 문화를 이해하는 핵심 개념을 ‘주민들의 삶’, ‘범위의 확대’ 두 가지로 분류하고 개개인의 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유연하고, 연대하고, 공생하는 협력 관점에서 봐야 함.
- 문화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고, 많은 지역 주민의 삶에 있어 시민 참여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 이루어지길 원함. 문화재단의 기획자와 도서관의 사서들이 좀 더 넓은 관점으로 기관의 가치가 아닌 주민들의 삶을 위해 더욱 협력하길 바랍.

Q. 한승희(좌장) 서울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

- 노원문화재단에서 다양한 협업을 진행한 윤금노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?

A. 윤금노 노원문화재단 문화진흥팀장

- 처음엔 역시 양쪽 모두 합쳐지는 것에 대해 공감대와 배경 사항을 공유와 소통이 없었음. 이런 상황으로 인해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부족하다고 여김.
- 문화재단은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예술적으로 입혀주고 도서관은 재단에 인문학적인 관점을 제시하며 하나의 식구가 되길 원함.

□ 질의 응답

Q. 이민규 화랑도서관 사서

- 학습시설과 문화예술 기반의 협력을 통한 협력을 진행하며 주민을 소비자로 볼 것이 아닌 생산자로서의 기반을 확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?

A. 윤정환 (재)노원문화재단 도서관 정책실장

- 지향하고 있는 부분이며, 현재는 재단 내 도서관과 문화예술 그룹이 서로를 이해하고 이를 통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고민하는 자리. 이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의 그룹이 맞닿아 있는 주민에게 어떤 깊이의 협력을 만들어갈지에 대해 다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음.

Q. 김병호 노원 어린이극장 예술감독

- 적절한 시기에 포럼을 개최해 준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필요한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패널 분들이 참여하여 자랑스러움을 느낌
- 다양한 분야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었다면 더욱 좋았을 것
- 노원이 문화도시로 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신뢰하고 있음.

A. 한승희 서울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

-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함. 노원이 문화도시로 발전하고 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경험하는 과정에 있으며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

(정리) 한승희 서울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

- 노원문화재단이라는 운명공동체 안에서 다소 이질적으로 보이는 집단들이 ‘주민 문화서비스 향상’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 화합하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작지만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하며, 이러한 시도들에 대한 성공 경험은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음.
-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원문화재단 내 지역주민의 문화적 니즈에 대해 이해하고 집단 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‘학습공동체’의 운영을 제안함.

III

포럼 진행 사진

□ 개회

- 사 회 : 이종현 노원문화재단 정책기획부장
- 개회사 : 원응호 노원문화재단 사무국장



□ 주제발표

- 발제1 : 윤정환 노원문화재단 도서관정책실장



○ 발제2 : 이진우 성북문화재단 도서관사업부장



○ 발제3 : 장석류 연세대 행정대학원 사회문화 겸임교수



□ 지정토론

○ (좌장) 한승희 서울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

○ (패널) 발제자 윤정환, 이진우, 장석류

토론자 오지은 서울도서관장, 윤금노 노원문화재단 문화진흥팀장

